

제10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0. 09. 18. (금) 09:30 ~ 12:30
장 소	대우빌딩 7층, 회의실
참 석 자	위원장 등 9명 (재적인원 11명 중 9명 참석)
주요내용	○ 공론화 용역 착수보고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 인원 확정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관련 논의 ○ (주)자광 발표 시간 및 발표내용 등
회의결과	○ 시나리오워크숍 참여 명단 결정 : 32명 - 정책·도시관리(8명), 도시계획(8명), 지역경제(8명), 시민(8명) 확정 ※ 참여자 명단은 공정성 고려, 워크숍 완료 이후 공개 예정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관련 결정 - 공론화 이해 관련 설명 주체 결정 - (주)자광의 제안내용 설명 관련 결정 ○ 차기 회의 일정 - 2020. 7. 27.(월) 09:30 ~

제10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

#. 개 회

발 언 자	발언 내용
간사	- 안녕하세요.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 ○○○입니다. - 금일 회의는 재적인원 총 11명 중 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머지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제10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일단 먼저 진행사항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관계자	-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금 시청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28건의 시민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 제목으로 보시면 거의 100%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분들께는 별도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론화 용역이 지난 8월 24일 제안서 및 가격 평가를 통해 협상 적격자를 선정한 후 9월 7일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로 잡았으나, 주 과업인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는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역 수행업체는 (주)메트릭스리서치입니다. - 정종호 본부장 외 9명이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추천 참여자 명단입니다. 각 위원회 등 단체 추천 및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참여가능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도시, 정책관련 그룹은 참여자 8명이 모두 확보 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그룹은 참여계획 인원 8명 대비 14명이 확보되어 각 분야별로 2명씩 추천 후 확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그룹은 참여 계획 인원 8명보다 1명 많은 9명이 확보되었으나, 소상공인 분야에서 2명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유통건설 분야에서는 1명이 추천되지 않아, 인원수 조정 및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 그룹은 주민과 언론단체 주민 자치 협의회는 참여 계획 인원 6명대로 확보되었으며, 시민 사회 단체의 경우에만 최초 모집 공고 시에 한 명만 추천되어, 기 추천된 한명에 대해서는 참여 확정하고,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3명이 지원하여 이에 대한 추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상으로 진행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착수 보고

위원장	- 그럼 용역수행 기관에서 인사 및 착수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용역 수행기관	<착수보고> - 안녕하세요. (주)메트릭스리서치 정종호 본부장입니다. (생략)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 위원	-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팀과 팀, 실제 일하실 분들의 이해력이 라던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제쯤 가능하고 이런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오늘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합니다. - 어느 정도 가안이 되면, 저희가 실무진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용역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주시 관계자	- 일억 삼천 예산인데요. 낙찰금액은 일억 이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으로, 이 홍보 방안이 가능합니까? 신문광고, 방송 자막 광고, sns 홍보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용역 수행기관	-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그 범위 안에는 이익을 남길 생각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산출내역 안에서는 홍보예산을 500~1000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 지역방송 자막광고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 협조만 해주시면 다른 지역 자치 단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방송광고라기보다는 자막광고입니다. 신문 광고도 전면광고는 힘들 것이며, 적정한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sns 홍보라던가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전문가 자문단은 용역 수행기관에서 구성하시는 건가요?

용역 수행기관	- 일단은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	- 공론화 위원회에서 관여할일은 아닌가요?
용역 수행기관	- 관여 여부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지만,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 자문단 구성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하고 상의를 하면서, 또 여기 분들도 다 전문가이시니깐,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나중에 워크숍이나 공론화를 진행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이런 소통이 있나요?
용역 수행기관	- 자문위원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이며,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추후에 자문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	- 시나리오워크숍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검증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계획을 알고싶구요. - 모집과정에서 성과 연령에 대한 고려만 하시고 지역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이게 대한방직 부지가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하여있는데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의 차이와 관심도가 다를 것 같은데 지역 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일단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성, 연령, 지역 모두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수가 될 만한 것을 정리를 해서, 전주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도록 뽑을 예정입니다.
○○○ 위원	- 성, 연령, 지역 변수를 모두 고려하시고 추가적으로 학력 같은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예정하는 인원이 1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틀은 넉넉히 300명 정도 고려하신다니깐 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변수를 다섯 개를 제시하셨는데 다섯 개를 120개의 셀로 나누면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일단 그렇게 하면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물론 진행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것까지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	- 지역이 예를 들어 진주시가동이 10개면 10개의 동으로 갈 것인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으로 갈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들과 꼭 상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수행기관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증위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시나리오워크숍 회의 때마다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	- 나중에 참여자 여론조사를 할 때, 성, 연령, 지역, 지역은 행정동으로 하면 될 것이구요. 그 세가지만 삼단으로 총화하면 돼요. - 그 표본만 잘 추출되고 나면 소득하고 직업, 학력은 저절로 잘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직업, 소득을 조사하기도 어렵고 밝히기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용역 수행기관	- 예, 최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기 위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아 그리고 현장을 가보나요? 내가 볼 땐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라 현장을 가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그러더라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로드맵 한번 보여주시죠.
용역 수행기관	<로드맵 소개>
위원장	- 참석자야 나중에 결정할 것이고, 위원님들이 일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장소도 같이 이야기 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	- 공론조사가 시행이 되려면 거기서 물어보는 안건이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나온 최종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 기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도록 되는지. 최종 결론이 안 나와도 30일 정도면 최종 의제가 나오니깐 그것에 기초해서 공론화 조사 설문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용역 수행기관	- 네 맞습니다. 일단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바뀔 일은 없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료집을 만들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	- 자광이 발표하는 것은 혹시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뭐를 발표해라 이런 걸 말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 일단 그럼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또 장소는 전주시하고 논의할 것이니깐 그죠? 느낌상으로는 전통 문화전당교육장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전주시 관계자	- 그 쪽이 장소도 넓습니다.
위원장	- 뭐 저는 잘 몰라서, ○○○ 위원님은 이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 위원	- 저는 일정부분에 관련해서, 10월 9일 ~10일 토요일이 연휴가 돼서 아예 이 부분은 고려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한 주를 늦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더라도 그 날 쉬는데 나오라하는 것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추석 연휴 끼고 용역 수행기관도 최종 시나리오 워크숍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하는 일정이 조금 빠듯한 느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주라는 일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명단이 확정이 되면 물어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	- 물어보나마나 대답은 두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럼 또 결정을 못해요. 그냥 여기서 결정하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럼 볼 때는 한 주 늦추는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를 좀 잘해주시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 근데 그렇게되도 일정에 크게 차이는 없나요?
용역 수행기관	- 뒤 쪽에 보시면 공론화는 12월 초에 끝내기로 했는데 조금 뒤로 밀릴 것 같고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 자료집 작성은 오늘 이야기 하면 되는 거죠? - 그리고 다섯 번째에 자문위원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분야, 교통분야인데 자문위원단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공론화 위원에도 교통분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이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문단분들을 구성하는 겁니까?
용역 수행기관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에서 논의된 상황 외에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진 시각일 있을 수가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 이분들은 나중에 나가서 질의에 답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용역 수행기관	-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과연 타당한 의견인가 이런 근거를 제시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문위원단을 필요 시 구성하신다니깐 할 때, 저희들과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세부 일정표를 보니까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보니까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오전에 두 번 있고 1일차에, 그 다음에는 공론화위원회가 앞에 나가서 할 근거는 없어요. 다만, 첫 번째 공론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은 좋은데, 그 자광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자광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 위원님이 맨 처음 할 때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칫하다간 자광에서 두 번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십분이면 십분, 내용 제한을 해서 발표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	- 저는 설명 정도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 위원	- 자광측은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각색을 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커요.
○○○ 위원	- 그래서 저희가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야 하죠.
○○○ 위원	- 그리고 제 생각은 자광을 참여 안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참여 시키되 지금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짧게. 그러니까 여기 타임테이블을 시, 분 단위로 타이트 하게 짜야해요. 여기 보시면 되게 루즈하게 되어 있잖아요. Q&A를 할지 말지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시에 제출한 계획서 안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준다 이런 선에서 아주 최소화 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 그걸 꼭 자광에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광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요약해서 말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나 할 여지가 없어요. 그 내용을 자광에서 와서 하라고 하면 이 기업은요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위원장	- ○○○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길어지니깐, 일단 뒤로 늦추겠습니다.
#.시나리오 워크숍 명단 결정	
위원장	- 오늘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워크숍 명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워크숍 명단 확정 건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 정책·도시관리 그룹의 행정분야는 위원회 추천 중 참여가능 하신 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님, ○○○ ○○○○님, ○○○ ○○○○○○○○○님입니다.

위원장	- 확정해도 괜찮을까요?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 분야 세분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 거버넌스 분야에 3명은 각 위원회 추천을 받아 결정되었으며, 시의원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되었으니, 정책·도시관리 그룹은 이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그룹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부터 보시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원 중 참여가능한 사람에 대한 추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오나,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님과 ○○○○○님이 참석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추첨없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지요?
위원 모두	-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 다음으로 교통분야의 추천된 4명께 참여의사를 물어봤습니다. - 먼저, ○○○ ○○○○○님은 정책도시관리 그룹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의 ○○○님은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 ○○○ 두 분이 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조경·경관 부분은 ○○○ 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	- 조경·경관분야는 총 5명이 추천되었으며, 우선 ○○대학교에서는 ○○○ 교수님, ○○○ 교수님이 계시어 참여의사를 여쭙았는데 ○○○ 교수님께서서는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 교수님과는 연락 전이었으나, 전북대에서는 한 분만 생각하여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중에 ○○○ 교수님은 도와드리고 싶는데 바쁘셔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립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 ○○○○○○○○님께서도 전주시의 상황을 잘 알고 참여의사를 밝히셔서 ○○○○○○님과 두 분이 조경·경관 분야에 참여하시면 어떨지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 좋습니다. 네. 그렇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해도될까요? - 네, 상황을 잘 아시는 ○○○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 다 맞습니다. 근데 ○○○○○○님은 건축 전공을 하신 분이고 현재 ○○○○○○○○○이런 ○○○○를 맡고 계셔서 분야가 이쪽이 맞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경관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전문가들을 시나리오워크숍에 섭외할 때 우려는 부분들은 어찌됐건 이걸 본인들을 위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가 확정을 해야지만 참여를 하는 것이 명확해지니만 확정이 되는 순간 공문을 보내시면서 그런 윤리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안 장치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전문가분들을 쫓 보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 여성 인적 특성상 좀 그런 것도 안배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 너무 교수님들만 많으면 좀 전문성이 좋긴한데요..
○○○ 위원	-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면 ○○○○○○은 여성분이시죠? - 그리고 뒤에 부동산 주택 분야에도 두 분다 여성분 아니신가요? 만약에 들어오시면 ○○○, ○○○ 두 분다 여성분이시죠?
○○○ 위원	- 아니요. ○○○○○○는 남자분이세요.
○○○ 위원	- 그럼, 물론 남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근데 현재 지금 전문가가 한 분은 ○○님이고, 한 분은 ○○님이 아닌 그룹 구성인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 위원	- 교통분야는 두 분다 교수가 아닙니다.
○○○ 위원	- 부동산 주택분야도 두분다 전주대교
○○○ 위원	- 저쪽 도시계획 분야는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교수가 아니고요. 교통분야는 두 분 다 교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경분야도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교수가 아니구요. 그 다음 부동산 주택 분야는 두 분다 교수님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는 그냥 ○○○○○○ ○○○○님이에요.
위원장	- 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결정된 사항으로 해주시죠. - 다음, 부동산 주택 분야는 ○○○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	- 이전에 추천받았던 6명 중에 두 분이 참여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위원장	- 나머지 4명은 참여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나머지 2명으로 확정지어도 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도시 계획분야 이렇게 여덟명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 그룹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는 세명 선정하기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관계자	- PPT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3명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해주신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은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이 깊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자원하셨습니다.

위원장	- 개별적으로? 그런데 원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에 추천받기로 했으나, ○○○○○○○○○○○○○○○○○○○와 ○○○○○○○○○○○○○에서 전주시에 참여의사를 밝히시어, 부득이 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내어 추천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 어떡할까요? 일단, 모두 추천으로 들어온 것이니 다섯 분은 놓고 추첨을 해야 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밑에 유통건설 분야의 ○○○○○○○○○○○○○에서 추천이 없군요. - 지역경제 그룹의 총 인원이 부족하니깐, 그럼, 추천이 많은 소상공인 분야 중 유통과 연관이 큰 ○○○○○○○○○○○○○○○○○를 유통분야가 맞을 것 같고, ○○○은 주가 아니라 직접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 위원	- ○○○○○○○○○○○○○에서 ○○○○○○○○○이 추천이 됐어요?
○○○ 위원	- ○○○○○○○○○○○ ○○ 추천은 지금 현재 ○○직이네요? ○○○○○○○○○○○ ○○○○ ○○○인가 그렇네요?
전주시 관계자	- ○○○은 아니고 ○○○○○○○○○○○○ 소속의 ○○○○○○○○○○○○입니다.
○○○ 위원	- ○○○○○○○○○○○, ○○○○님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는지?
○○○ 위원	-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인가요?
○○○ 위원	- ○○○○○○○○의 ○○○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	- ○○○○○○○○의 ○○○고 여기에는 회원입니다.
○○○ 위원	- ○○○○○○○○○○○○○○○○○○○가 공식적인 조직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공식적인 조직이 되려면 전주시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곳이나, - ○○○○○○○○○○○○○에서 이해관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역이므로 참여해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 위원	- 거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록 물론 법인 등록이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어도.
○○○ 위원	- 지금 저 조직에서 저희가 나름 전주시의 신고가 되어 있는 조직의 추천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신고 안 되어 있는 조직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 위원	- 그래서 제가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 법적인 유효를 받는 건 법인이죠. 단체라 하더라도. -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도에 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느냐. 또는

위원장	- 그러면 일단, 그다음 시민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민 그룹에 추천 분야, 효자5동에 있는 두 분과, 그 외 한 분은 확정되었고 나머지 한 분은 아직인가요?
용역 수행기관	- 네, 일단은 계속해서 무작위추출을 통한 모집중이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 네, 나중에 거기서 결정을 해주세요. - 시민 단체는 총 4명이 지원하셨는데, 1차 공모에 ○○○○○님만 지원하셔서 일단 확정하고, 2차 공모 시 지원한 3명 중 한 분을 추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 위원님 왜 이렇게 이쪽에서는 한 분 밖에 안 왔어요? 처음예요?
○○○ 위원	-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안 된 것 같아요.
○○○ 위원	- 추천하죠. 추천하기로 했으니
○○○ 위원	- 1차 공모 시 지원하신 문지현 부장님에 대해서는 우선 확정하자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님은 세 분중에 추천하자는 의견도 주셨어요. ○○○ 위원님 세분 중 추천해도 괜찮으시죠?
위원 모두	- 원래 약속대로 해야하는데,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
위원장	- 두 분 중에 추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만들어 놓은 것 주세요.
<추첨>	
위원장	- ○○○○○○○○○○○ ○○○○○○○○○○○님으로 추천되어 ○○○님과 ○○○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언론단체에는 추천을 받았으니 확정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협의회에 추천받아서 ○○○님으로 추천되었으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다시 지역경제 그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지금 ○○○○○○○○○○○○ 확인을 해본 결과 회원수가 약 360명 정도 되고, 구성은 건물주가 15%, 나머지 85%가 임차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관리기구가 되면은 건물주가 참여하는 것이 좋거든요? 상가들 상인들은 거의 다 임대예요.
○○○ 위원	- 임대는 바뀔수 있다는 이야기죠.

○○○ 위원	- 아니 근데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	- 4명 중에 3명을 뽑아야 하는데 ○○○○○○○○○○○○의 중요도를 높인다면 위에 세 분중에 한 분을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는 인원을 9명으로 늘릴 경우 다른 곳도 9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미 8명씩 32명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님 같은 경우 딱히 ○○○ 상권과의 영향력은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깊고 300여명 이상의 상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보면 그 분들을 유통쪽으로 보고 유통으로 내려도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 위원	- 큰 틀에서는 항목 안에서는 좀 유통성이 있잖아요. 그니깐 전체 지역 경제 그룹 8명으로 하고, 현재 추천인이 9명이니, 유통 건설 분야가 2명이었는데 추천 1명으로 조정을 하고 소상공인 분야를 4명으로 늘려서 5명 중에 4명을 추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장	- 그러니깐 유통건설 분야를 1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	- 유통건설 분야를 한 사람으로 하고, 왜냐하면 추천을 받기로 했는데 추천을 못 받은 상황이니깐요.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유통건설 분야를 1명, 소상공인 분야를 4명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위원	- ○○○○○○○ ○○○○○가 이해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유통건설 분야에서 원래 당초 두명으로 하기로 했다면, ○○○○○○○ ○○○○○를 유통분야로 하고, 4명 중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 다른분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모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 ○○○○님을 유통건설 분야로 하고, ○○○○○○○○○○○○, ○○○○○○○○○○○○, ○○○○○○○○○○○○, ○○○○○○○○○○○○ 이 4명 중에 추천하여 한 분을 제외하겠습니다.
<추첨>	
위원장	- 추첨 결과, ○○○○○○○○○○○○ ○○○○○가 추첨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그럼, 이것으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명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부득이하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관련 결정	
위원장	- 시나리오워크숍 진행 관련 결정입니다. - 먼저, 참여자 불참 시 대책 관련,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역 수행기관	- 일정이 정해진 후에 참여자가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따라 매번 일정을 연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되어, 반드시 사전에 모든 일정에 대한 참석 확정 유도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불참한다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 네, 이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 번을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참석하고 두 번째 참석하지 못하고 세 번째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	- 연속성이란 문제 때문에 처음에 불참하였을 때는 제지를 해야죠.
위원장	- 처음에 참여 안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뽑을 순 없지 않습니까. - 그냥 진행한다 그 숫자로. 예를 들어서 여덟명이 아니고 일곱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섯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니깐 한 번 안하는 것은 좋은데, 두 번, 세 번 안 하면 안 된다던지. - 어떻습니까 의견주시죠. 대부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	- 공론화를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저분들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대체인력을 넣어두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요. - 다만, 이게 저희가 개인을 보고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성이 단체를 보고 추천받아 선정을 한 것이 많아요. - 그래서 처음 일에 참석에, 저희가 명단을 확정하긴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알려드린 일정에 대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도저히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참여자가 속한 단체에 대신에 다른 분들 1, 2, 3을 다 참여를 시켜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지를 열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	- 대신에 한 번 정해지면 그분이 삼일 다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위원	- 첫 번째 워크숍 때,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 첫 번째 때에 안오면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해서 2차, 3차 때 와봐야 절차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대체를 한다면 첫 번째에 반드시 대체 인력이 들어오고 그 인력이 계속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2차, 3차에 안나온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이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시민 그룹을 한 번 보시죠. 시민 단체 분야에 ○○○○○○○ 추천 이 분이 저 대신 다른 분을 한 분을 참석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 위원	- 일단, 처음에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는 한번은 빠져도 되고 두 번은 되고 이게 아니라, '연속성 있게 백프로 참여해야 한다.'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두 번째는 1차가 진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 전문가 위원들에서도 갑자기 일정이 안되서 참여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충이 있죠. 사전에 위원을 변경하시는 건 다 똑같은데 만약에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 단체같은 경우는 그 추천한 단체에서 일정상 한번이라도 참석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단체 추천을 다시 의뢰하는 정도로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 위원	-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정을 제시하니깐 나는 첫 번째는 참여하는데 두 번째는 참여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 그건 하지 않는 걸로 하죠.
○○○ 위원	- 그니깐 일정은 공지했는데 피드백이 이들은 됐는데 하루는 안되는 경우 그대로 진행할 것 인지 변경할 것 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 일단은, 전체 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로 모집합니다. - 다만, 대내적으로 '1차는 반드시 참여', '2차에 빠지고 3차에 오는 건 불가능', '2차에 참가하고 3차에 못 오는 것은 가능'으로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어떠신지요.

○○○ 위원	- 일단 일차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나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깐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거 잡아요.
○○○ 위원	- 일차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는 1차 전에 위원 참여자들을 교체할 수는 있다. - 교체든 뭐든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교체요청이 오면 단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는거니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구요. - 1차, 2차, 3차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추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해야 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참여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못 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거 잡아요. - 저는 그냥 1차 시작하기 전에는 단체의 추천 베이스들은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작이 되면 바꾸지 않는다는 거구요. - 왜 그렇냐면 찬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찬성쪽 선수와 반대쪽 선수가 있잖아요. 선수가 똑같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쪽 선수들이 못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예비명단이든 구두로 추천을 하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찬반에 치열하게 쟁점을 두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빠지고 세 번째 다시 나와도 이분이 알아서 논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은데. 회의하기 전까지는 명단을 단체의 경우에 바꿀 순 있으나, 일단 결정되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분을 빼고 회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단체는 그렇다치고 시민 같은 경우에 효자5동 주민이 나 대신 와이프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다시 뽑아야 하는 건가요?
용역 수행기관	- 시민은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일정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모집한 상태거든요. 확인도 거쳐야 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명단을 확정을 했는데 본인에게 일일이 일정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일정을 제시했을 때 나는 참석 못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배제할 것인가. - 사후적 의미에서 첫 번째에 안 나오면 제외한다. - 이것만 정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나오든 이걸 이 사람에게 맡겨 두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온다 근데 다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재촉을 하고 말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거구요. -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일정을 제시했는데 막상 보니깐 내가 하루를 빠지게 생겼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을 재촉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꼭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 사전에 확인했을 때 100%여야 된다. 단, 시작했는데 첫 번째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나오지 마라 이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정할게 없다는 거죠.
위원장	- 좋습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100%로 되어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 위원	- 그중에 날짜를 보니깐 하루는 정말 어려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를 빨리 해야된다는 거죠.
○○○ 위원	- 그렇게 빠진다면 위원회에서 보강을 해야죠.
○○○ 위원	- 아니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해야죠.
위원장	- 그렇죠 그걸 강조 백프로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 그럼 원칙이 이렇게 갑니다. 사전에 일정을 공지해서 이 때 참여 가능합니까 물어봐서, 하루라도 참여 못하면 바꾼다. 스타트는 백프로로 시작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것만 원칙으로 가져가고 그때는 명단을 바꿔야한다.
전주시 관계자	- 예를 들어서 협회나 이런데는 대체가 가능한데요. 전문가들에서 추천을 받았잖아요.
위원장	- 그것은 다시 뽑아야죠. 뭐. 그건 비상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도 있어요.
○○○ 위원	-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 후보자 명단이 있으면, 올라가는 방식이면 괜찮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그걸 위원장하고 저하고.

○○○ 위원	- 경우의 수는 많은데요. 일정이 급하면 위원장하고 위원님한테 미리 말을 하도록 하고, 그전에 회의를 할 수 있으면 결정할 수 있죠.
○○○ 위원	- 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에 후보자가 있으면 그냥 미래세대를 놓으면 어때요?
○○○ 위원	- 전문가 그룹에도?
위원장	-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지금 이야기한대로 어떤 비상인 경우가 있으면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특으로라도 하고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해결하죠. - 원칙은 시작할 때 백프로로 출발해야한다. 그 원칙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근데 어느 조직에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실지 모르니깐, 일단은 백프로로 스타트한다. - 그리고 명단을 바꿔야한다 그 원칙만 정하시죠.
○○○ 위원	- 용역 수행기관은 일정을 빨리잡아서 빨리 공지해야겠네요. - 그래야 빨리 확인이되니깐.
용역 수행기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 24, 7일 토요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다음으로 진행 관련 결정을 하겠습니다. - 공론화 방식, 추진 배경, 추진 사항까지는 용역수행 기관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방향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1일차 일정 관련, 의제 방향 및 쟁점사항 중에 자광의 제안에 대한 쟁점까지는 여기다가 해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때는 의제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	- 첫째 날 맨 앞에다가 자광 설명을 하는 것은 순서상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광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잡혀있어서, 그다음에 쟁점이라고 되어버리니깐 그럼 상상력이 떨어지거든요. 도시계획 일반 이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의제 방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	- 네, 공론화 의제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	- 지금 세부일정표를 보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용역 수행기관에서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공론화 프레임이나 틀에 맞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의제 쟁점별 소개가 아니라 끝에 있는 질의응답일 것 같습니다.

	-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또 뭘 질의해야 하느냐 이랬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것인데 의제 발표한 것에 대해 그게 핵심일 것 같고, 그런 프레임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 이거는 그냥 내용상 이런 것들이 다루어진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좋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재구조화 한번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단어라던지 용역하는 업체에서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 자광 발표 관련 논의	
위원장	-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자광 안에 대한 설명 관련입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광의 안을 공개한다. 다만, 자광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자광이 아닌 객관적인 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 지난번 회의 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 땅이 일단은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은 토지 소유주가 사적 소유주이기 때문에 한번은 규제된 내용과 시간에 자광측이 직접 설명토록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각 의제를 우리가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제시를 할 때, 자광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부채납, 자광이 한다하니까 기부채납 이야기가 나온거죠. - 그렇다면 자광의 사업계획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광측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설명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 몇 가지만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만약에 오게 되면 이미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만 설명하면 좋은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이제 헛갈려요. 기업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 그래서, 기존에 제시한 것, 너희들이 이렇게 제시했지 않느냐, 그 사실들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의제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해줄 때, 자광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의제를 던져주면 되죠.
위원장	- 지금 ○○○위원님이 자광의 계획안을 설명해주는 것은 좋으나, 자광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객관적인 측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다.

○○○ 위원	- 이게 지금 공론화 위원회가 일년 쯤 거의 되는데요. 사전 준비 포함해서. 그런데 자광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가지죠. 1년 동안 시민들에게 한 번도 직접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할 경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 그리고 행정을 데리고 자광의 제안서를 대리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전주시에서는 알잖아요. 시는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3자가 설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광이 직접 설명을 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자광이 하나 행정이 하나 제3자가 하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광이 설명한다는 것은 자광이 자기의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사실적인 요소 아닌 다른 요소를 가미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그러면 이것이 참 제대로 되면 좋은데 반대쪽으로 봤을 때, 아니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검증되지도 않은 검증될 수도 없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실을 자광에게 판을 맡아줘서 이렇게 듣는 것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그러면 이제 자광과 반대되는 쪽에서 자광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대쪽도 세워줘야 하는데 그게 이것이 어떤 목표인 것 같은데요.
○○○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전에 발표자료를 다듬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광의 원고를 받아서 이해 당사자인 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쪽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면 그게 이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죠.
위원장	- 일단, 사전 원고를 받아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사전 원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반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반대하는 분들도 반론의 기회를 주자는 건데. - 반대하는 반론의 기회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 위원	- 가장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에 물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 일단 누구라고 하는 것은 찾아야 하고, ○○○위원님 의견은 자광 측에 원고를 받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그런 원고를 받고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이 뭘 고려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공론화를 하는 취지를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왔던 게, 어쨌거나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잖아요. 공유지 같으면 개발계획 같은 것 없이 백지상태에서 논의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데 이것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발언의 기회는, 공론화라는 게 누구든지 와서 시민들이든 자광도 물론 업체이긴 하지만 정말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기 때문에 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할 기회는, 방식은 최소화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규칙을 정하던지 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은 제한해서 발표해달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자광에게 시민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공론화의 의미를 살리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	- 정책 제안은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나요? 자광에서? - 그 안하고 저번에 위원회에 자광측에서 발표한 안에 차이가 있나요?
전주시 관계자	- 없습니다. 제안 내용은 똑같습니다.
○○○ 위원	- 전주시에 제안된 내용에 기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단, 사유지이고 자광이 당사자인 것은 충분히 맞는 이야기인데, 저도 그날 위원회에 설명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영향을 주더라구요. 당사자가 만약에 발표한다면 물을 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그건 조금 구체적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이 부분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와서도 자광안이나 대한 방직 부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회의 과정이나 모든 걸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느냐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거죠. - 저는 일부는 대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이라는게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전주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참여자들을 얼마나 객관화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분위기라던지 내용, 절차 속에서 얼마나 담기냐가 공론화의 성공여부라고 봅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쪽이 자광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그쪽이 이제 자광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나, 또 반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 일일이 답을 또, 자광 안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게 되면 행정이 답을 해야하나, 누가 답을해야하나 문제가 시나리오 워크숍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누가 답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하고,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 위원	- 발표를 안 하더라도 질문이 나오면, 그 딜레마가 또 있다는 거예요. - 두 번째는 공론화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 그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내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충분히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서로의 수용성 문제나 이런 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화하고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보충 의견 내지는 객관화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들어오게 하는 게 공론화를 최종적으로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위원	-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어차피 시나리오워크숍이 전문가들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고, 자광이 설명을 할 때, 그분들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도록 유혹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뽑은 전문가분들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광이 어떤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자광에서 와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법적인 문제 등에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면, 자광이 발표를 하게 하되,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자광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주어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질의응답하는데 시간을 제한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반대측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객관적인 대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그래서 일단 자광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내용에서 직접 발표하게 하되 자광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게 한다. -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 근데 ○○○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나오는 법적인 측면이라던가, 한계 이런 것은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광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자광을 퇴장시키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 질의응답에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쟁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저는 다시 전문가들을 불러올 수도 없고 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저는 우리 위원들이라고 봅니다. - 위원님들이 어디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로 위원분들이 질의응답에 답을 할 수 있고, 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일단 자광측의 발표의 기회를 준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내용에 이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위원 모두	-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발표 시간을 십분을 주느냐, 십오분. 지난번 십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위원	- 자광에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준다는 측면에서 보통 토론회에서는 20분은 주거든요. 피피티 몇 장 이야기하면 이십분 금방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않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신 우리가 당신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라는 정도의 시간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20분 안에 발표하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네요.
○○○ 위원	- 15분은 너무 짧은가요?
○○○ 위원	- 죄송한데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 자광이 와서 객관적인 우리는 얼마를 들어서 건설 계획을 지상 몇 층을 지하 몇 층을 하겠다 이런 것만 말을 하면 좋은데 발표자의 주관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백년을 전주를 먹여 살릴 살림을 꾸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설명 못 합니다. - 그래서 반대쪽 발체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 사람은 ‘우린 백년 동안 교통지옥에 시달릴거야’ 말을 이것을 이제 나중에 기술적으로 교통안전 전문가가 질의응답해서 가는 거지. 순전히 발표를 20분, 30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물론 반대측에 시간을 주면, 저희들 보단 확실히 강하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일단 그럼

	자광에 기회를 준다.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반대측 의견도 똑같은 시간을 쉼서 듣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위원	- 저는 자광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주면 반대라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언어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는 시나리오워크숍이 자광 안도 n분의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제가 찬성 반대의견 언어 개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자광 안 하나를 놓고 또는 자광 안이 중심이 돼서 시나리오를 써가는 것에 대한 문제지 그런 개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요구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열린 부분, 공론화에서 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자광 안이 발표되고 나서 나머지 시나리오들이 상상력이라던지 주장들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이지 자광 안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충의견 내지는 객관의견 또는 평가의견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분을 주면 이쪽 의견도 20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적절한가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분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위원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니까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광의 논리나 안은 저번에 들어보았고, 몇가지 쟁점과 객관화시켜야 할 문제는 원고를 정리해서 준비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 그런 유형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합의된 시간 20분 내에 평가의견 정도의 발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지금 자광이 직접 발표를 하고 종합적으로 반대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우려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점이 쟁점이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발표를 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위원	-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답할 수는 있지만, 자광의 발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공론화위원의 성격이 규정될 수 있어요. - 저 친구들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이게 안되고 법적으로 어렵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설령 법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왜 공론화가 열립니까? 대한방식이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깐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유지임에도 공익성이 있으니까 공론화를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익적으로 나쁜 개발인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주관을 배제한 채,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요.
위원장	- ○○○ 위원님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 위원	- 저는 두가지 의견인데요. - 일단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위원 내에서 위원님이 발표하는 것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자광이 발표한 것 그것에 대해서 쟁점을 조금 좁혀주는 의견이 있다면 예전에 기술자문했던 분들 있잖아요. 저희랑 조금 공유를 해서 몇 가지 이러한 사항이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 개인적인 의견은 자광이 발표하고 앞에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이게 찬반 토론회가 아니고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린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앞에서 자광이 앞에서 발표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되버리면 이것을 자광안에 반대하고 찬성하고 여기에 맞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줘서, 보통 공론화를 하면 전문가발표는 일반 토론회 정도의 발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 발표가 주가 아니예요. 시민들이 의견을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궁금증들을 풀어나가고 의견들을 공유하는게 주거든요. 전문가들이 핵심이 아니예요. 전문가는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 그래서 자광이 발표하는 것도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주가 자광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자광에게 말할 기회는 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발표할 때 한 20분 좀 넘게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정도만 배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 공론화 토론을 할 때는 전문가 의견은 15분씩 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 지금 ○○○ 위원님께서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이게 찬반의 논리로 가면 조금 공론화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기술자문단이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합니다. - 그래서 기술자문단으로부터 또 이제 지금 우려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 예를 들어 기술자문단에서

	조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	- 제가 평가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찬반 프레임에 안 갇히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른 것 빼고 여과면적이 팔만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광은 그런 이야기 잘 안하거든요. - 지상 지하 합쳐서 연면적 지하주차장 합쳐서 팔만평인데 팔만평이란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지역에 들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봐서. 쉽게 말하면 상업면적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나쁜것이다 이렇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사람들은 흘려듣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판단해야한다 이 수준이구요. - 예를 들어서 자광이 제안하고 있는 기여나 기부 등은 구분되어야 하고, 법적 기부와 추가 기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치가 있습니다고 객관화 해주는 거지, 이 안 자체가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는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해서 들어온 것을 형식적인 것을 다 벗겨내고 내용물을 어떻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자광이 15분 정도 발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려와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을 기술자문단에 부탁하여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 똑같이 15분 정도 시간을 주어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요? - 또한, 자광에서 어떤 내용으로 15분을 구성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크게, 다섯 가지의 내용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 제안으로 한 번 말해봅니다. 첫 번째 개요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토지이용 계획, 세 번째가 교통 및 동선 계획, 네 번째가 건축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여 및 기부에 대한 분야, 다만, 다섯 번째 기여 및 기부에 대한 발표 시 ○○○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기여와 기부를 나누어서 법적인 사항과 ○○○ 위원님이 다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다시 정리드리면 개요, 토지이용 계획, 교통 및 동선 계획, 건축계획 그다음에 기여 기부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논쟁, 계획 이득에 대한 논쟁 그렇게 다섯 가지를 15분 내에 발표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 위원	- 그럼, 기술자문단에서도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 네, 똑같이 시간을 주어서 팩트체크에 우려 등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 정도는 발표하게 하고, 자광은 퇴장 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 이게 지금 이조 오천억 정도 규모의 개발 사업이잖아요. - 그 자본 조달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건축계획 안에 지상, 지하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공간활용? 그런 측면이 건축계획에 들어가나요?
○○○ 위원	- 그렇죠. 그게 건축계획에 연면적 그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 위원	-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점 말씀드리는데요. - 자광에게 15분을 할애를 하잖아요. 찬반 공론화는 아니지만 한가지 우려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발표규칙은 ‘동영상 사용은 금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시민 참여자들이 숙의할 때, 가장 혼란과 휩쓸리기 좋은 게 바로 동영상 발표 거든요. 예를 들어 신고리 공론화 때도 전문가들이 PPT 발표 시 룰을 정해서 양측에 동영상은 다 뺀다고 하고 심지어 자료집도 다 흑백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 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 칼라, 흑백으로 만들어라 제한은 안하겠지만 저는 조심스러운 게 동영상은 꼭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현혹 효과가 있더라구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의견을 수정, 받아들여서 15분으로 하되, 토지이용 계획, 교통 및 동선 계획, 건축계획, 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다섯 가지를 해서 15분 내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발표한다. 다만, 동영상 상영은 금지한다. 어떻습니까.
○○○ 위원	- 좋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일정상 첫 째날 오전에 발표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 일정을 한 번 보여주세요.
○○○ 위원	- 1일차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1일차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듣고 다음에 올 때 생각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올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또는, 2일차 오전 중에 하고 무조건 첫째 날 오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 저는 일단 1일차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저희들이 이것은 다음 11차 회의에 의제 방향으로 가보시죠. - 숙의 자료집이라던지, 자료집 경청 규칙은 있는 것이고, 자료집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 되었죠. 초안은 되어있죠. 그게 자료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집 안을 검토하기에는 벌써 열두시 반이어서 이 자료집에 대한 것하고 의제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 때하는 것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 질의응답에 대한 주체는 어디서 해야할지요?
위원장	- 질의응답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광은 발표만 하고 질의응답에서는 퇴장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질의응답도 자광으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위원회에서 미리 선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그냥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여기서 하실거면 위원분 중에 한, 두 분과 기술자문단에서 쟁점 발표를 하니 같이 섞어서 한 세 분 정도가 답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분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정도는 위원회에서 질의응답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만, 자광으로부터의 직접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위원	- 질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답변자를 선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자료집 검토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번 11차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기 회의 날짜를 정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보도도 같이 하겠습니다. - ○○○ 위원님 보도자료를 토요일이라 안되잖아요. - 오늘도 괜찮습니까? 오후에? 그러면 오후 몇시쯤 하면 될까요.
○○○ 위원	- 시간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문에는 월요일 일자로 나구요. 보도만 할 거면 네시쯤, 브리핑을 하실거면 두시 정도 하시는 것이 좋구요.

	- 일단 보면 오늘 쟁점이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 참여단 32인명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시나리오 워크숍이 10월 17일날 시작이 될 것이라라는 것인 것 같구요.
위원장	- 금일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보도자료 낼 때 ○○○ 위원님과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다음 회의는 추석이고 하니깐 10월 5일 어떻습니까. - 의제는 5일날 다루고 자료집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10월 5일 오전 안되시는 분. 괜찮습니까?
위원 모두	- 괜찮습니다.
위원장	- 그럼 10월 5일 오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집에 대해 꼭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위원	- 5일날, 의제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가요?
위원장	- 네, 의제와 참여자 잔여 명단 결정되는 부분 등 이야기하겠습니다. - 자 그럼 11차 회의와 결정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